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속, 전력 인프라 투자 필요성도 커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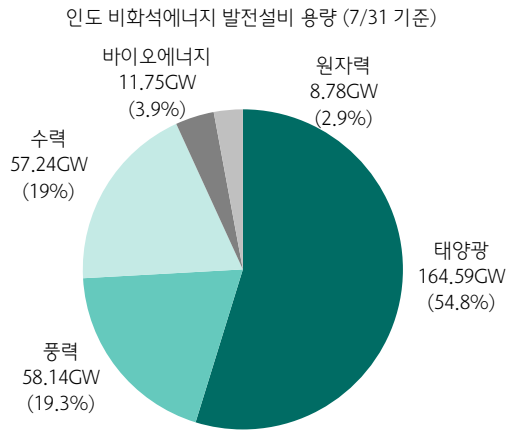
인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부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300.5GW를 돌파하며 정부가 제시한 2030년 500GW 목표의 60%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는 291.72GW로, 태양광(164.59GW)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풍력(58.14GW)과 수력(57.24GW)이 뒤를 이었다.

설비 확대는 실제 발전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30년 500GW 목표가 제시되기 이전인 FY2020년 10%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FY2026년 26%까지 상승했다. 최근 7월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힘입어 석탄 발전 비중도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전원믹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염에 따른 냉방수요 확대와 제조업 고도화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석탄 발전량 자체는 전년 동월 대비 12.8% 증가했다. 즉,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확대되고 있지만, 전력수요 증가폭 역시 큰 만큼 아직 석탄 발전량을 본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2030년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 500GW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이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약 75%를 차지하는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지역이 편중돼 있고 발전량도 시간대와 기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설비 확대와 함께 송전망과 ESS 등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관련 인프라 구축이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제 전력 운영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4~6월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음에도 태양광 발전량 8,133GWh가 출력 제한됐으며, 일조량이 풍부한 낮에는 인도에너지거래소(IX)의 실시간 전력 가격이 kWh당 0루피까지 하락한 반면, 야간에는 상한선인 10루피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수일간 나타났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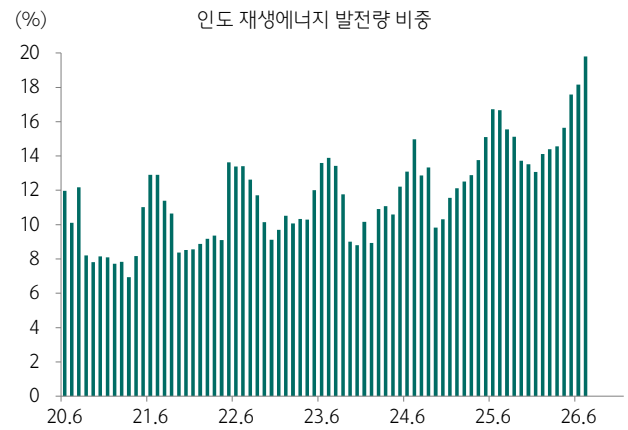
결국 향후 인도의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전설비가 확대될수록 송전망과 ESS 등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 수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도표 1. 인도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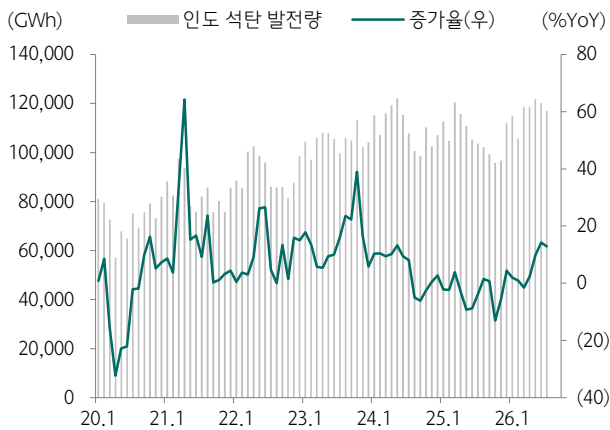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하나증권

도표 2. 인도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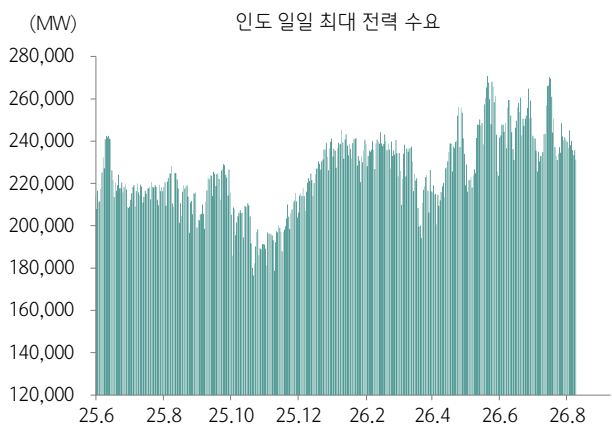
자료: CERC, 하나증권

도표 3. 인도 석탄 발전량 및 증가율



자료: CERC, 하나증권

도표 4. 인도 일일 최대 전력 수요



자료: CERC, 하나증권